

# 손절매, 개미만의 아픔 아냐... 기관들 '눈물의 로스컷'

기관들, 하락장 지속 우려 전방에 추가 손실 막기위해 잇따라 손절매 펀드 국내 주식설정액 7.6% 줄어

최근 증시 급락에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주식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모양새다.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종목의 로스컷(손절매)을 통해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로스컷 물량이 쏟아지면서 저가 매수세도 실종된 상황이다.

7일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설정액 50억원 이상 국내주식형펀드 중 액티브형인 234개 펀드가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수익률 역시 모두 마이너스다. 6개월 수익률로 보면 KB자산운용의 'KB주주가치포커스'(3.23%)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국내 주식형펀드 중 액티브형 펀드의 설정액 증감〉

단위:억원

소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	6개월	연초이후
액티브주식전체	571	233,028	205,255	-8,431	-10,616
액티브주식일반	382	131,350	112,230	-1,351	-1,952
액티브주식중소형	67	31,014	25,882	-4,232	-4,921
액티브주식배당	67	54,170	51,277	-1,179	-1,583
액티브주식섹터	6	4,052	3,474	-249	-230
액티브주식테마	49	12,442	12,393	-1,421	-1,930

2019.08.06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했다.

자금 유출도 가파르다. 연 초 이후 국내주식형 펀드 가운데 액티브형에서만 1조61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전체 설정액의 5% 정도가 빠져나간 셈이다.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설정액이 619억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밀려드는 환매 공세와 주가

하락에 자산운용사의 '로스컷'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증시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파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자산운용사의 주식비중 축소는 통계에서 드러난다. 지난 5일 기준 펀드에 설정된 국내 주식 설정액은 46조 8277억원이다. 1개월 전(50조6857억

원)보다 7.6%나 줄었다.

심지어 하락장이 계속될 것이라 우려 때문에 운용사들은 투자종목 주가가 로스컷 수준까지 급락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운용사들은 펀드 편입 종목의 주가가 매입단가보다 30% 수준까지 떨어지면 로스컷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로스컷 기준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매도하면 안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로스컷 종목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반대로 로스컷 기준까지 하락하지 않아도 주식을 일괄 매도하기도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당분간 반등이 어려운 종목은 로스컷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리테일 펀드는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하지만 연기금, 금융사 등이 주로 가입하는 펀드

의 경우 절대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로스컷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서리를 맞는 것은 개인투자자다. 로스컷 물량이 주가 반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가 오후 들어 하락전환 한 것도 기관이 매도규모를 키우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로스컷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면서 "일정 하락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리스크관리팀에서 운용본부로 보내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달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로스컷 규정은 있지만 펀드매니저의 판단과 리스크매니지먼트(RM)팀 가이드에 맞춰 하락장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한화건설, '포레나' 이름 달고 첫 분양

천안 두정지구 '포레나 천안 두정'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첫 적용단지는 천안 두정지구다.

한화건설은 이달 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8 일원에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천안 두정'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포레나 천안 두정은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06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76㎡A 252가구▲76㎡B 90가구▲76㎡C 87가구▲84㎡A 462가구▲84㎡B 75가구▲102㎡ 101가구다. 틈새 평면부터 중소형, 중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면을 갖춘 것이 특징.

단지가 조성되는 '두정지구'는 지난 2008년 일반공영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약 94만㎡ 규모, 7500여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이다.

포레나 천안 두정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꼽힌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천안시 유일의 자립형사립고인 북일고가 자리하고 있다. 또 주변에는 북일여고와 희망초등학교(2020년 개교예정)가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포레나 천안 두정은 천안시 신형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는 두정지구에 조성되는 최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금값된 금' 연일 최고가... 달러도 귀한 몸

### 저금리 시대 재테크

#### ④ 몸값 뛰는 금·달러값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금 '고공행진' 원·달러 31개월 만에 1200원 돌파 전문가 "이번달 1200원 내서 등락"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되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안전자산의 핵심으로 꼽히는 금과 달러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금값, 연일 최고가 경신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6일 종가 기준)은 5만8120원(1돈 21만7950원)으로 집계, 전날보다 910원(1.59%) 올랐다.

금값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연일 상승세다. 지난 2014년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다.

김훈길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시변동성이 우려되면서 채권과 함께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라며 "1분기 달러강세와 증시호조속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금리 하락속도가 빨라지면서 5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금값은 대체로 시장금리,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즉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해지면서 금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 세계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의 금의 매력도는 더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높아질 전망이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 선호 환경으로 이미 금ETF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도 금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ETF 금 보유량은 지난 2일 기준 7593.3만온스로 집계, 금 가격이 온스당 1500달러를 넘었었던 2013년 4월 초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 다각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 매입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최근 유럽 중앙은행들은 매년 총 금 400톤 이상을 매각할 수 없기로 체결한 중앙은행 금협약(CBG A)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유럽 중앙은행들의 금수요가 높기 때문에 금 매각량의 상한선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원·달러 당분간 1200선 유지 전망

미국 달러화 강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15.3.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건 2년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달러선물지수를 기초로 삼는 달러선물 ETF(상장지수펀드)도 고수익을 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

르면 지난 5일 기준 달러선물 레버리지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최고 16%대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1200선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 또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글로벌 변수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 또한 원달러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현실화 여부와 이달 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실행되기까지 현재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준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과 경기 상황 모두 완화 약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지금의 높아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그 동안의 유동성 기대보다 앞으로의 무역분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더욱 민감해질 상황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달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환율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이달 중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증권 다이제스트

#### 키움증권

#### 연 9% ELS 3종 출시

키움증권이 ELS 3종을 출시했다. '키움 제1079회 ELS'는 만기 3년, 예상수익률 세전 연 9%다. 기초자산은 SK하이닉스 보통주와 유로스톡스(EUR OSTOXX)50지수, 홍콩恒生중국기업(HSCED)지수다. 스텝다운조기상환형 ELS로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9%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27%(연 9%)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청약 마감은 오는 9일 오후 1시다. /김유진 기자

#### 금투협

#### '대체투자 이해'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대체투자 이해'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9월 17일 개설한다.

'대체투자 이해' 과정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분야의 상품별 구조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체투자 현황, 주요 이슈 및 투자전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교육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8일간 33시간이다.

/손엄지 기자